

Mythical Man-Month CH2 요약문

20160169 최수민

* Man-Month(M/M)은 월당 투입되는 인력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작업의 양을 의미한다. 프로젝트의 크기 혹은 작업 시간을 추정할 때 사용된다.

CH2 - The Mythical Man-Month

1. 핵심

- a. SW 프로젝트들은 다른 이유보다도 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많이 겪는다. 저자는 이 배경을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얘기하고 있다.
 - i. 프로젝트의 크기 혹은 소요 시간을 추정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. 이 부분은 SW manager의 직감에 기대는 방법으로 보통 진행된다.
 - ii. 투입된 노력(혹은 시간)을 진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.
 - iii. 추정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SW 매니저들이 '쉐프의 완고함'이 부족한 경우가 잦다.
 - iv. 스케줄 진행 상황이 잘 모니터링되지 않는다.
 - v.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력을 추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.

2. 새롭게 배운 것

- a. 인력과 시간은 상호교환가능하지 않다. 즉 1:1로 치환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례해 output을 얻을 수 없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
 - i.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에 기여하려면 training이 필요하다.
 - ii.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선 intercommunication이 필요하다.
 - iii. component debugging과 system test는 sequential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.
- b. 저자가 SW task의 일정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경험적 룰이 있다. 일정 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.
 - i. 1/3 planning
 - ii. 1/6 coding
 - iii. 1/4 component test & early system test
 - iv. 1/4 system test, all components in hand

- v. 이 때 coding만이 그나마 추정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는 1/6 밖에 안 된다.
planning을 기대보다 훨씬 크게 잡았지만 이것조차도 디테일한 스펙을 짜거나
신기술에 대해 조사하기엔 부족할 수 있고, 전체의 1/2는 디버깅하는 데 소요하는
것이 좋다.

3. 중요하다고 느낀 것

- a. 일정 산출의 경우 정량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.
 - i. SW 매니저의 직감에만 맡기면 그 누구도 그 일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.
productivity figures, bug-incidence figures, estimating rules 등을
발견시키고 공표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.
- b. 사전에 정한 스케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력을 추가하여 해결하기는 굉장히
어렵다. 이 경우 일정을 재산정하거나 일정 내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나누어 진행하는
결정이 필요하다.
 - i. Brooks's Law: Adding manpower to a late software project makes it later.